

중국기업, SK 울산공장 “호평”

운영 효율성과 깨끗함에 찬사 ... 상호 협력관계 증진 기대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으로 한·중 재계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중국기업연합회 회장단 일행이 6월17일 SK 울산 컴플렉스를 방문했다.

천진화(陳錦華) 중국기업연합회 회장 일행은 국내 산업현장 시찰 프로그램으로 6월17일 오전 POSCO에 이어 오후에는 SK 울산 컴플렉스 방문길에 나서 최태원 회장과 신현철 사장 등 SK 최고경영진과 환담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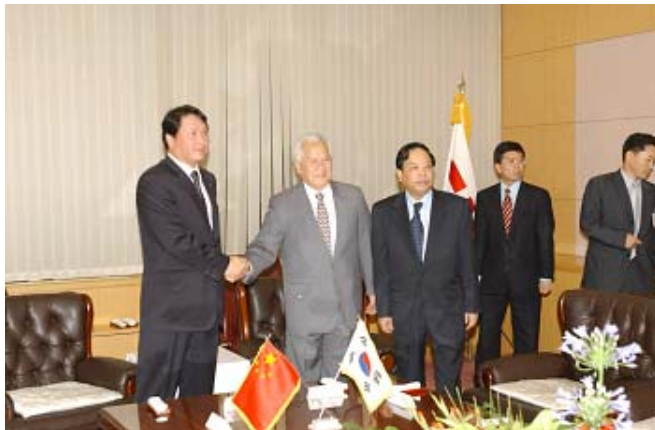
최태원 회장은 세계일류 수준에 도달한 울산 컴플렉스의 경쟁력과 효율성에 대해 소개하면서 SK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함께 협력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다.

환담에 이어 회장단 일행은 홍보전시관 및 홍보영화 관람 등 울산 컴플렉스에 대해 소개를 받았으며 울산

컴플렉스가 40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중국을 비롯해 세계에서 전개중인 기술사업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천진화 회장과 부회장인 왕지밍(王基銘) Sinopec 총재는 최태원 회장, 신현철 사장과 함께 본관 앞 화단에 방문 기념식수 행사를 가진 후 울산 컴플렉스 생산현장을 둘러보았으며, 생산현장 시찰중에는 제1·2 중질유분해공장의 조정실을 직접 방문해 생산현장 책임자로부터 공장운영 전반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울산 Complex를 둘러 본 회장단 일행은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인 공장규모에 놀라움을 나



최태원 회장(왼쪽)과 천진화 회장

타내면서 소수의 직원이 거대한 공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점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돼 있는 공장에 깊은 감명과 함께 큰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중국의 고급아스팔트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SK의 아스팔트 제조 및 출하시설과 <ZIC> 브랜드로 동북3성을 중심으로 급격한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윤활유 제조시설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06/21>